

The Korean Journal of Quaternary Research
Vol. 11, No. 1, 1~24(1997)

한국 선사시대 석기문화에 대한 연구 : 석기문화의 진화*

稜 基 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A Study of Stone Industries of Korea

Kidong Bae, Ph.D.

Department of Anthropology, Hanyang University
Ansan 425-791, Korea

要 約

한반도의 석기문화는 전기구석기부터 시작되는데 동아시아지역에 퍼져 살던 고인류집단의 일파가 한반도로 확산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석기문화는 아슐리안주먹도끼를 공반한 정형화되지 않은 구석기공작이었다. 중기구석기는 르발르와기법의 유무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으며 전기적인 특성이 그대로 지속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약 3만년전의 후기구석기시대가 되면 석인석기공작이 나타나고 석기도 대단히 정교해 지는데 이 석기공작은 동아시아로 확산되어 오던 현생인류의 도구이었다. 바이칼호부근에서 기원한 세석인문화는 한반도의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 석기공작은 중석기를 거쳐 신석기에 이를 때 까지 눌러떼기방법과 함께 존속하였다. 신석기시대에는 마제기법이 나타나게 되고 어로용 도구들이 새로이 추가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간단한 가공으로 만든 농경구들이 추가되기 시작하는데 중후기에 가서는 마제농경수확구가 증가하게 된다. 청동기 시대에는 금속기의 영향을 받은 마제석검 등의 대단히 정교한 석기들이 출현하고 또한 석기의 기능에 의례적인 기능이 추가되면서 양식이 분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생산구들도 효율성이 높게 발달해 나가게 된다.

*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 1992년도 자유공모과제에 의해 이루어졌음.

ABSTRACT

The Lower Paleolithic stone industries in the Korean peninsula were introduced by hominid living in East Asia during the Middle Pleistocene. The Lower Paleolithic stone industries are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Acheulean typed bifaces and unrefined forms. Middle Paleolithic industries are similar to the antecedents in flaking techniques. No levalois technique has been observed. Blade technology appeared in the peninsular around 30,000 BP indicating presence of modern man. Micro-core technique probably originated from the Baikal region during the late Pleistocene dispersed into around 20,000 BP and evolved to Mesolithic industries in the terminal Pleistocene and early Holocene. In the Neolithic Age, polished stone tools were found from the early sites. Fishing gears were added to the tool-kits in the early Neolithic. From the beginning of the Neolithic, especially in northern part, stone artefacts for cultivating are found. Inventory of agricultural tools was expanded as going toward middle and later part of the Neolithic Age. Ploughs, shovels and lunar shaped stone knife etc. were often found. The polished stone industries were evolved to their highest peak during the Bronze Age. Some of bronze articles were copied on stones very elaborately, which must have been inspired by bronze tool making technology. Stone tools became refined and sophisticated. Some stone artefacts appeared for ceremonial purpose, for example for burial. Stone tool assemblages of the Bronze Age suggest societies became complex.

I. 서언

본 연구는 선사시대 석기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시간적인 범위에 있어서 석기공작의 기원과 기능 그리고 지역적인 양식변화에 대한 패턴을 확인하고 그 변화의 원인을 찾고자하는 노력이다. 시간적으로나 자료의 종류에 있어서 대단히 방대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석기문화변동이

나 기능적인 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설명을 제기하려고 한다. 현재까지 한국석기문화에 대한 연구를 종합화 하여 석기문화의 시간적인 변천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물론 구석기시대 연구는 당연히 석기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석기공작의 변화를 논하게 되지만 다른 시기에서는 총체적인 석기연구나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이다. 이

여록에서는 방대한 자료의 제시는 논문의 형식으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원간에 출판될 본 주제에 대한 저서에 의해서 보강될 것이다.

한반도의 선사시대는 흔히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시대로 나뉘어 진다. 청동기시대는 금속기가 사용된 시기이기는 하지만 생산용구와 같이 흔히 사용하는 도구들은 거의 석기로 제작한 것이다. 이 시기야말로 사실 석기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석기의 제작기술이 뛰어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시기이다. 물론 이 시기 이후에도 석기는 줄곧 사용되어 왔지만 이 시기까지의 석기공작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석기문화변화를 서술함에 있어서 기존의 시기편년체계 속에서 석기문화의 변화와 연속성 그리고 경제생활과 사회생활과의 관계를 현재까지의 연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론하여 보고 앞으로의 연구방식을 설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고의 제2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각 시대별로 가장 중요한 석기문화의 현상을 제시하고 그 기원과 변화상을 논하게 될 것이다.

II.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란 석기문화의 출현에서부터 후빙기의 시작에 이르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구석기시대의 석기공작은 흔히 전기, 중기 그리고 후기로 나뉜다. 이것은 물론 시기별로 나뉜 것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석기의 제작기법이나 석기의 양식과 형태의 조합에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석기시대 동안 석기공작의 진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한반도에 석기공작의 도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언제 어떠한 양식의 석기공작이 어디로 부터 도입되었던가?라는 문제인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구석기공작으로 주먹도끼의 출현일 것이다. 이 문제는 전곡리구석기유적의 아슐리안주먹도끼로 크게 부각된 문제이지만 현재는 동아시아구석기고고학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다. 르발르와기법의 존재유무에 대한 것도 한국선사시대 석기공작의 계통을 파악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것이며 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석인기법의 출현은 후기구석기공작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 석인기법의 기원과 연대는 어디까지인가?도 구석기공작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숙제이다. 그리고 세석인기법의 문제이다. 세석인기법은 후기구석기말엽에서 나타난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는 후후기구석기 또는 중석기시대에 많이 사용된 석기공작인데 한반도의 양상과 그 기원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추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현재의 자료가 불충분 점도 많지만 문제의 부각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앞으로의 해결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할 논의이다.

1. 한반도 구석기공작의 기원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은 현재로서는 상원검은모루유적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많은 동물뼈들과 함께 4점의 석기가 발견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북한학자들이 제시하는 100만년은 아니라하더라도 동물상의 구성이나 높은 절멸율로 볼 때 대단히 오래된 유적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고고학연구소 1969 : 김신규와 김교경 1974). 그런데 이 석기공작에 대하여 인공품의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정영화 1995). 대형석기가 4점이 출토된 것은 도저히 그 자리에서 사용하거나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분명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반입된 것은 정황으로

미루어 틀림없는데 각 개별 유물에 나타나는 박리흔 등이 진정 인공적인 것인가 또는 자연적으로 박리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인 셈이다. 이 석기공작이 인공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석기공작은 한반도의 고인류의 서식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지 그 자체가 기술적인 복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고인류가 들어온 시기는 언제일까? 물론 검은모루유적 이외에도 석기공작유적은 많이 있다. 일부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기도 하다(손보기 1972, 1984, 1985, 1988). 그러나, 아직도 확실하게 수 십만년 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석기공작은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 고인류서식의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변지역의 구석기공작의 연대를 참고로 할 수 있다. 동아시아지역은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된 호모 에렉투스가 발견된 지역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 자바와 중국의 동북지역인 하북성에서 백만년 이전의 유적이 발견된 것이다(Huang 1985 ; Schick 외 1991 ; Wei 1985). 중국의 동북지역은 백만년전 이래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지속적으로 살아온 지역으로 베이징의 쉐우코우티엔같은 유적은 50만년전에서 25만년 전에 이르는 시간에 지속적으로 형성된 유적임이 밝혀진 바 있는 것이다. 일본 열도에서는 70년대 말까지 오래된 구석기유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중부홍적세로 올라갈 수 있는 유적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0만년전이란 절대연대가 확인된 유적이 동북지방에서 발견되었다(후지무라 등 1996). 이 유적은 카미다카모리유적으로 주먹도끼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유적의 층을 형성하고 있는 화산암의 연대가 피션 트랙

법에 의해서 측정된 것이다. 만일 이것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극동지역 전역에 고인류의 서식이 이미 50만년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인류의 확산의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한반도의 인류서식은 적어도 50만년 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유적의 문제는 주먹도끼가 대단히 정형화되어 있어서 동아시아의 구석기공작으로서는 그 유례가 없으며 또한 절대연대치가 다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연대측정법이 얼마만큼 정확한 것인가가 앞으로 검증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2. 주먹도끼의 존재와 구석기전기의 석기형태

한반도의 구석기공작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흔히 주먹도끼공작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주먹도끼의 존재는 전곡리에서 서구형의, 즉 소위 아슬리안주먹도끼가 알려지면서 특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전곡리유적에서 주먹도끼의 출현은 동아시아구석기연구에 커다란 자극제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동아시아구석기공작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다(이선복과 클라크 1983 ; Huang 1987). 한반도 내에서 주먹도끼가 출현된 유적은 현재로서 전곡리 외에도 한탄강-임진강 유역의 구석기지점에서는 흔히 발견되었으며(배기동 1993 ; 이선복 과 이교동 1993 ; 최무장 1996), 이와 유사한 것들이 금굴에서도 수 점 발견된 바 있다(손보기 1984, 1985). 후기구석기라고 알려진 수양개유적이나 석장리유적에서도 보이지만 수양개유적의 경우에 이 주먹도끼의 형태가 세석인석핵을 제작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전기구석기에서 보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소위 전기라고 주장된 유적에서 나타나는 주먹도끼류들은 아슬리안주먹도끼나 또는 아프리카의 발전형 올드완석기공작에서 보이는 주먹도끼와 그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슬리안석기공작에서 등장하게 되는 전면가공의 주먹도끼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흔히 석기의 재질을 문제삼을 수도 있겠지만 아프리카지역에서는 한반도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규암제 또는 현무암제의 석재를 이용하여 전면을 양면으로 가공하여 형태에 정형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캄랍보 폴에서 나타나는 아슬리안주먹도끼는 규암제이지만 플린트제에 못지않은 형태적인 정형성을 유지하고 있고 올로게세일리에유적이나 이스밀라유적의 경우에도 현무암나 응회암제 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련도나 규칙성이 뚜렷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주먹도끼의 출현빈도에 있어서도 전곡리나 다른 유적의 경우에 그 절대적인 수효가 극히 적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적의 형성과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지만 절대수가 작은 것은 문화적인 차이라고 할 수 없다면 기능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먹도끼가 언제부터 나타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전통은 한반도 고유의 석기제작전통인가? 현재, 한반도의 전기구석기에 속한다는 석기공작들의 정확한 연대가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검은모루유적 이외에 전기구석기에 속할 수 있는 유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중부홍적세로 올라갈 수 있는 유적은 몇 지점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용곡동의 경우에도 이미 석기공작이 전기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부층의 절대연대나 노출된 인골의 진화정도가 중부홍적세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전제현 외 1986; 한창균 1992). 남한 지역에서는 전기구석기로 주장되는 곳으로 석장리의 하부층(손보기 1968, 1988), 금굴의 하부층(손보기 1984), 전곡리(김원용과 정영화 1979; 배기동 1988), 주월리와 가월리유적(이선복과 이교동 1993), 금파리(배기동 1993, 1997), 원당유적(최무장 1997), 동해안의 심곡리와 도화리(이선복 1988) 등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적의 그 어느 지점도 연대가 확실하거나 학자간에 동의가 이루어진 유적은 없다. 석장리의 경우에는 하부층유물의 인공품시비가 있음(정영화 1986; 클라크 1982)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부층의 연대가 상부층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층위관이 유지되고 있다(손보기 1988, 1993). 금굴의 하부층의 연대에 대해서도 연대문제가 제기(이선복 1988) 되고 있지만 애초의 입장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데 두 유적들의 연대는 제기된 유적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탄강과 임진강유적의 연대에 대하여 이미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배기동 1988, 1989; 이선복 1986, 1996; 정영화 1979, 1986, 1995; 최무장 1995 등등) 아직도 그 연대가 중부홍적세의 어느 시점에서 부터 이제는 2만4천년전의 연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연대가 제시되었다. 절대연대로는 퇴적층의 열광법연대가 다수 제기되었는데 약 20만년전에서 부터 5만년 전 사이의 범위에 해당된다. 근래 확인된 아이라(始浪)화산재는 지표에 가까운 부분에서 확인되었는데(이선복 1996) 유적의 연대적인 하한을 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지표에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현재의 퇴적물이 수성의 퇴적물이라고 하면 퇴적이 끝난 이후에 화산재

가 층위 속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보다 아래층에서는 약 9만년 전의 아소 IV 화산재가 발견되었다는 보고(최성락와 사가다 1995)도 있어서 전곡리의 연대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곡리 일대의 현무암의 연대는 수 차례의 포타시움 아르곤 측정으로 적어도 30만년 전후에 상부현무암이 분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이선복 1986). 종합해 본다면 전곡리의 퇴적층은 30만년전 이 후에 24,000년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곡리 보다 하류에 있는 유적들은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그 어느 석기유적도 안전하게 중부홍적세로 편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주먹도끼의 연대도 중부홍적세의 후반이 연대의 상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곡리의 주먹도끼로 동아시아 구석기문화의 전통이론(Movius 1944)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새로이 시작된 것은 사실인데 주먹도끼는 한반도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황허중류의 몇 지점에서 이미 오래전에 주먹도끼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지만 이러한 석기공작을 서구의 석기형식분류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주먹도끼로 불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보색(百色)이나 후베이(湖北)성의 몇지점에서 이러한 주먹도끼들이 발견된 것이 보고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앞에서 언급된 카미다카모리유적에서 상당히 잘 제작된 주먹도끼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석기공작의 존재는 동아시아에 주먹도끼공작이 널리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먹도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기구석기공작의 전반적인 특징은 불규칙한 석기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전기구석기공작의 특징도 이러한 석기공작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석기의 형태로 볼

때, 대형석기로는 찍개류와 다각면원구 등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소형석기로 나타나는 굽개류는 간단한 가공으로 날을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형석기군에서는 주먹도끼를 제외하고는 분명한 가공의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석핵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그래서 전기에 있어서 석기는 전반적으로 일회성 또는 임의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중기구석기의 존재와 르발르와기법

서양에서 중기구석기는 흔히 르발르와기법의 출현과 기능분화된 소형석기들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석기공작에서도 르발르와기법이 몇 유적에서 언급되었다. 석장리석기공작이나 명오리석기공작에서 르발르와기법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르발르와기수를 제시하기도 한다(손보기 1972 ; 최무장 1981, 1983). 대부분의 경우에 석편 또는 박편의 모습이 삼각형을 하고 있거나 타격면에 한두차례의 타격흔이 있는 경우를 르발르와기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전형태조정이나 타격각 사전조정을 한 전형적인 르발르와 기법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르발르와 기법을 사용할 줄 아는 집단이 만든 석기라고 하면 석기공작의 세련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지만 전반적인 석기공작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전기에 나타나는 주먹도끼의 경우에도 얇은 것은 대부분 박편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고 석핵석기로서 주먹도끼는 모두 두터운 몸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르발르와기술이 없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석재에 있어서 르발르와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치밀한 석재가 드물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전기와 중

기에 있어서 르발르와 기법이 잘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비우스가 아니라도 최근에 석기들을 관찰한 보고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다(Clark and Schick 1988; 클라크 1982). 만일 동아시아지역에서 르발르와 기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중기구석기의 석기공작의 형태들이 전기구석기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기로 분류된 구석기공작은 시기적으로 마지막빙하기에 제작된 무석인석기공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석인석기공작과 후기구석기

후기구석기는 전세계적으로 석인석기공작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도 후기구석기에 석인석기공작이 나타난다. 그리고 석인을 제작하기 위한 사전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석재의 엄선, 즉 입자가 고르고 치밀한 석재를 사용하게 된다. 이 치밀한 석재를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 타면조정이나 석인의 양측면이 고르게 떨어져 나오도록 힘을 고르게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석인석기들의 존재는 석장리공작, 수양개공작, 고례리공작, 창내공작, 금굴의 상층석기공작, 등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절대연대가 제시된 것은 석장리석기공작인데 후기구석기에 해당되는 것은 약 3만년전과 2만년 전으로 나왔다(손보기 1993). 대체로 3만년 전후에 석인석기공작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시베리아(데레비안코 1990)나 중국의 북부지방에서도 대개 이 연대에 근접하는 절대연대(張三水 1987)들이 나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동북아시아 지역에 석인석기공작은 대개 3, 4만년 전후하여 퍼진 것으로 보인다.

원래 후기구석기, 즉 석인석기공작은 현생인류의 출현과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동아시아지역의

현생인류의 확산에 대한 고인류학적인 증거는 아직도 미약한 편인데 이것은 한반도나 일본과 같은 지역에서는 고인류학적인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석인석기공작의 확산의 시기와 방향은 현생인류의 확산과정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인 셈이다. 실제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생인류의 연대들도 대개 이러한 연대 폭 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동북아시아의 현생인류확산시기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의 석인석기공작의 주인공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로 유입되었던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어려운 주제이다. 이전의 석기문화와는 달리 시간적인 차이가 크지 않고 전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동아시아에서도 석인석기공작은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현생인류의 확산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석인석기들은 대체로 가공부위가 뚜렷이 구분되고 가공이 정교하여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한반도에서 흔히 보이는 것들 중에는 굵개류인데 이 시기에 두드러지는 것은 석인의 끝을 가공한 소위 밀개라는 석기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밀개는 흔히 동그스름하게 가공되어 있는데 길이가 긴 것에서 부터 짧은 것까지 다양한 크기의 것이 나타난다. 이 시기 석기공작의 대단히 특징적인 것의 하나로 수양개유적의 유경식첨두기의 존재이다(이용조 1984). 이 유경식첨두기는 석인을 가공하여 만든 것인데 현재까지는 수양개와 밀양의 고례리후기구석기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이 석기의 기능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아 창이나 살촉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석기는 한반도의 주변 지역에서는 이 보다

늦은 시기에 연해주의 우스티노프스까유적에서 1점이 나타나고 일본의 큐우슈우지역에서 대유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큐우슈우의 유사한 석기공작이 수양개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마쯔후지 1993). 이러한 증거들은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후기구석기의 확산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석인석기공작을 만든 집단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고 또한 산악지대에서도 발견되어 당시의 경제생활의 방식의 다양한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석인석기나 소형석기들을 제작하기 위한 석재 중에서 흑요석의 경우에 백두산에서 채집된 것으로 확인되는 석재들이 있어서 당시의 주민들의 이동성 생활이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민확산의 속도에 대한 자료인 셈이다(손보기 1989).

5. 세석인 공작의 출현과 중석기석기공작의 발전

세석인이라고 하는 것은 석인기법이 대단히 정교해져 아주 작은 석인을 제작하는 석핵을 말하는데 이 기법은 대체로 후기구석기의 말엽, 즉 빙하기의 말엽에서 나타나서 후빙기초에 크게 유행을 하는 기법이다. 한반도에서는 후기구석기문화층의 상면이나 범람원 윗편의 단구의 상면에서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시기에도 석재의 선택에 많은 노력을 보이는데 이것은 석인이 작아지므로 대단히 치밀한 석재라야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석기제작기법은 석재를 가장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능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진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날카로운 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법이 이 세석인기법이다. 작고 날카

로운 박편조각들을 가지고 석인기법으로 도구를 만들어 사냥 또는 채집에 사용하는 것이다. 바이칼지역에서는 이미 2만 4천년 전에 뿔에 석인한 것이 발견된 것이다. 세석인을 가공하는 것은 이전의 석기공작에 비해서 치밀한 공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다양한 방식의 제작기법이 존재한다. 이 기법상의 요소는 석재의 선택에서 부터 타격면을 다듬는 방식 그리고 세석인박리의 부위 등이 중요한 것들이다. 일본지역에서는 대단히 세밀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도 수양개의 경우에 몇가지로 그 제작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이용조 1997; 이용조, 우종윤과 윤용현 1996). 우선 외형적인 형식은 원뿔형으로 생긴 것과 썰기형으로 생긴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썰기형이다.

한반도에서는 석장리유적에서 일찍 부터 확인되었는데 이 외에 수양개유적, 옥과, 홍천의 하화계리, 해운대, 금평, 임불리 등의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세석인은 그 끝단에 많은 세석인박리흔이 있어서 한때는 배모양 밀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이것이 더이상 밀개가 아니고 석핵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석장리유적에서는 주거지가 나타난 층을 밀개문화층이라고 부르는데 이 층에서 세석인들이 출토되고 있다(손보기 1970, 1971). 이 층의 연대가 앞에서 제시한 바의 약 2만년 전의 절대연대가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수양개유적에서 얻어진 절대연대는 16,000년 전 전후가 되고 있다(이용조, 우종윤과 윤용현 1996). 그러나 임불리의 경우에는 후빙기초로 알려지고(최성락과 사카다 1995) 있고 남부 유적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동굴유적인 만달리 유적에서 나타난 흑요석세 석인공작(서국태 1987)은 원래 후기구석기로 편년하였다

가 근래에는 중석기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남부 일부 지방의 석기의 편년과 근접하는 것이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 고고학연구소 1992). 이 세석인 석기공작은 중석기에 가장 성행하지만 이 제작기법과 공반되는 석기제작기법인 눌러떼기법은 이 후 신석기시대초엽에 나타나는 석기들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세석인공작을 사용한 주민의 기원에 대한 문제이다. 세석인은 그 제작공정이 다양하게 나뉘어질 수 있어서 그 제작기법의 지리적인 연속성은 주민의 이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세석인공작의 커다란 패턴 중의 하나는 대륙에서는 북쪽 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석인공작의 기능적인 특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북방초원지대의 적응형태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또한 그것은 석기공작의 기원이 대형동물 사냥 등의 생계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Gai 1985 ; Derevianko 1990). 동아시아 지역의 세석인 공작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마이칼호 주변 지역에서 약 3만 5천년 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석기공작이 점진적으로 남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카또 1992). 세석인공작이 아라야형 조기와 함께 남하하여 한반도 지역에서는 약 2만년 전에서 1만5천년전에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들 주민들은 현재 주민의 형질의 계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Ⅲ. 신석기석기공작

신석기는 흔히 식량생산인 가축화와 농경으로 그 시작을 정의하여 왔지만 한반도에서는 석기와 토기에 의해서 그 시작이 규정되어 진다. 그래서 흔히 마제기법의 사용이

신석기시대의 석기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래서 마제기법의 시작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 마제기법이 생산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가 석기공작연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신석기시대의 생산경제의 변화와 생활패턴의 변화는 석기공작의 기능과 구성을 크게 변화시키게 되었다. 수렵과 채집의 도구들 뿐 아니라 이제는 어로생활을 보여주는 도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농경이나 목공기구들이 신석기시대에 나타난다.

한반도의 신석기문화는 흔히 3 내지 4단계의 시기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토기의 변화를 위주로 한 것인데 토기의 변화는 분명 신석기시대의 주민의 변화나 문화의 복합과 변동을 잘 보여주는 요소라고 생각되지만 이 토기의 변화와 석기공작의 변화가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특히 석기는 토기보다는 비교적 당시의 경제생활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경제행위를 반영하는 석기구석을 복원하여 그 시대적인 변천을 보는 것이 차후에 석기공작으로 시대편년을 시도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석기의 경우에 신석기시대 초기에는 구석기적인 전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으로 새로운 양식의 마제석기들이 출현하는데 이러한 마제석기는 점차 그 수효가 증가하게 되고 타제석기는 기능적으로 중심적인 위치를 잃어가게 된다. 신석기시대의 석기공작의 일반적인 특성은 내구성이 점차로 중요시되어 가는 과정이며 기능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석기시대에 보이는 석제도구에 일어나는 작은 혁신들은 아마도 시베리아와 중국으로 부터 끊임없이 주민의 이동이나 문화의 접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구석기전통의 지속과 마제석기의

출현

신석기시대에는 마제기법의 출현으로 시기 구분되지만 초기의 석기들은 구석기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신석기시대 초기의 유적으로 알려진 몇 유적에서는 구석기공작전통의 타제석기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고산리유적도 원시적인 형태의 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인데 이 유적에서는 가압박리법에 의한 석촉 등의 침두기가 많은 양이 출토되었지만 이 유적에서 마제석기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이청규와 고재원 1995). 상노대도의 경우에도 타제석기가 최하층에서 마제석기없이 출토되고 있는 데 이를 중석기문화층으로 구분하고 있다(손보기 1982 ; 장호수 1982). 중석기문화층은 신석기문화와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이른 시기의 층에서는 마제기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신석기 초기의 석기공작기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타제기법은 물론 마제석기제작의 초기단계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지만 순수 타제에 의한 석기제작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가령 농포동패층에서도 가압박리법에 의한 흑요석제 석촉이나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구석기시대 굵개나 톱날 같은 형태도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임효재와 권학수 1984). 그리고 상노대도의 경우에도 후기구석기적인 타제석기방법이 전기층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 발굴된 남강의 상촌리의 신석기 유적에서도 타제 또는 가압박리에 의한 침두기들이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구석기적인 석기제작 전통은 상당히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동아대학교 박물관 1997).

한반도 내에서는 마제석기가 구석기시대 에 출현된 것은 없다. 시베리아나 일본에서

는 후기구석기시대에 이미 마제석부 같은 것이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revianko 1990). 마제기법 자체는 이미 후기구석기시대 골각기제품을 다룰때 사용 하던 것으로서 구석기시대에 마제석기가 출현하였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초기에는 마제석기는 대단히 희귀하고 대부분의 경우 타제석기들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나타나는 신석기초기의 유적의 석기공작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신석기문화도 희귀하지만 있는 유적에서도 토기가 공반되지 않는 신석기문화를 설정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김교년 1994). 한반도의 전기에 해당될 수 있는 하북과 만주지역의 신석기공작들은 대략 기원전 5천년 전 경의 유적들인데 이미 이 유적들에서는 다수의 마제석기들이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마제석기제작기법은 신석기문화의 형성 이후에 새로이 흘러온 문화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락(新樂) 1기유적에서는 마제석촉이 다량 출토되고 있고(이효종 1990) 후와(后窪)유적이나 소산(小山)유적에서는 마제석부가 각각 24개와 7개나 출토되고 있다. 한반도 내에서는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서포항동의 최하층에서 부터 마제석기가 나타나는데 부분마제의 석부 뿐 아니라 석촉과 함께 마제로 만든 다양한 골각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절대연대는 없지만 북한에서는 기원전 5천년 경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만주지역의 신석기문화의 마제석기공작의 연대와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농경도구의 출현과 발달

한반도 신석기시대 농경의 출현에 대해서

는 여러 다른 견해가 있다. 한반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초반부터 농경을 하였다고 보지는 않지만 농경의 시작시기와 농경의 증거로 보는 도구에 대한 이론이다. 남·북한학자들은 농경도구의 변화를 토대로 농경의 변화를 뒤지개와 팽이농사 - 보습농사로 발전하였다고 보고 있다(길경택 1985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고고학연구소 1992 ; 서국태 1986). 물론 남한학자들은 뒤지개농사가 앞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농업발전형태에 대한 추론은 결국 출토되는 도구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농업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는 경작지확보를 위한 벌목구, 경작지구 그리고 수확도구와 조리도구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중에 수확도구나 조리도구는 반드시 농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집곡물이나 다른 음식물의 조리에서도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마제석기가 출현되고 있지만 농경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곡물이 확보되었다고 할 때 다른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경작지의 확보이며 정착적인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석부이다. 벌목과 집을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벌목은 선사시대에는 자연이 자연적으로 훼손을 입지않으면 식생피복이 두텁게 남아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농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결국 이 피복물 제거를 위한 도구가 본격적인 농경에 필수적이며 내구성을 가진 마제석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물론 한편으로 마제석부는 다른 목제도구, 즉 배를 만든다든지 집을 짓는 목재를 다듬는다든지 또는 다른 농경구를 제작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수확구 역시 채집경제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 농경단계 직전의 야생곡물을 채집할 때도 있어야 하는 도구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확구는 농경이 본격화하는 경우에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농경구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농경과 관련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경작구는 농경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작구의 존재확인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형태적인 가능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농경구라고 판단하는 것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여하간에 경작구, 즉 쟁기나 가래 등의 도구의 출현은 농경의 존재를 비교적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북한 학자들은 이른 시기에서 부터 농경이 존재해 왔고 이 농경은 팽이 농사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고고학연구소 1992 ; 서국태 1986). 이것은 북한지역의 신석기초기문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도구의 구성에서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요녕이나 만주의 다른 지역의 유적에서 기원전 5천년 경 전후한이른 시기의 유적들에서 많은 마제석부와 갈돌같은 조리도구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초기에서는 경작구는 두드러지지 않는데 이는 경작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굴지봉을 사용하는 것은 현대 원시사회에서도 보이는 원시적인 기법으로 이러한 도구의 사용은 석제도구를 많이 남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서포항 유적에는 이른 시기에서 부터 본격적인 농업을 시사하는 돌팽이들이 나타난다(김용간과 서국태 1972). 돌팽이는 단동의 옆타자나 길림의 소주산의 이른 시기층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팽이 이외에도 뼈나 뿔로 만든 굴지구들이 보이는데 궁산의 최하층에서도 뿔팽이가 발견된 바 있는 것이다. 이

러한 뿔팽이라고 하는 것은 팽이라기 보다는 호미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의 경작관련도구는 마제석부와 팽이종류인 셈이다.

돌보습의 출현은 농경의 제2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돌보습은 흔히 커다랗고 납작한 형태로 돌을 다듬어 사용한 것으로 상부가 직선인 타원형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사용한 흔적들이 있는 것도 다수 보인다. 형태나 중량으로 보아 땅에 대고 땅을 갈아엎는데 주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도구이다. 그래서 쟁기의 시원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탑리유적, 검은개봉유적 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돌삽도 중기에 들어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도구의 등장은 농업기술의 상당한 발전을 시사하는 것이며 또한 생산력의 커다란 상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팽이보다는 큰 곱배팽이는 중기 이후의 유적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농경의 규모의 변화라고 할 것이다. 곱배팽이는 팽이의 상부의 양쪽에 단으로 된 어깨가 생기는데 이러한 석기가 서포항유적, 앵가령유적, 궁산유적, 상노대도 유적 등의 유적의 중기이후의 층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널리 분포하게 된다.

농경도구 중 수확구는 몇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낫모양을 한 것이 있고 반월형석도가 있다. 낫은 돌낫은 중기 이후의 유적에서 보이는데 멧돼지의 이빨로 만든 것이 궁산유적의 2기층에서 발견된 바 있다(고고학민속학연구소 1957). 그러나 낫이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것은 중석기 이래로 발달하여 온 조합식석기, 즉 세석기를 이용한 소위 식인낫이 있었을 것이다. 식인낫의 존재가 곧바로 농경과 결부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후후기구석기문화에서 나오는 것도 이러한 낫들은 농경 이전의 단계에서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식인낫은 신석기후

반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 서포항3기층이나 범위구석1문화층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황기덕 1965). 그런데 낫은 수확구이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나무를 벤다든지 풀을 베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반월형석도는 수확구 중에 하나인데 신석기시대 후반에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돌로 만들었지만 서포항동 같은 유적에서는 조개로 만든 것도 나타난다. 반월형석도는 이름과는 달리 네모진 것, 세모난 것, 물고기형 등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등 가까운 곳에 구멍이 하나에서 셋까지 뚫려있는 것이 보통이다(안승모 1985). 이 구멍은 끈으로 매어 손잡기가 편하도록 한 것이다. 낫은 대부분의 경우 한쪽면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일부는 양쪽에서 갈아서 세운 것도 있다. 출토된 유적을 보면 톨연리, 신암리, 쌍타자 1문화층, 광가촌 2문화층, 소주산 3기층, 오가촌 유적, 상마석 유적 2기층 등에서 출토되었다. 반월형석도는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도작농경과의 관련은 불확실하지만 중국의 용산문화에서 유래되어 만주지방을 거쳐 한반도에 전래되었다는 견해가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김원용 1964).

3. 어로도구의 출현과 발달

신석기유적은 대부분의 경우에 큰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으며 이러한 유적의 입지조건은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증거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어로생활에 적응한 것을 보여주는 한반도의 신석기문화는 이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인근 지역의 문화적인 연속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어로문화는 이미 1만 5천년 전에 시작된 시베리아와 동해안지방의 어로문화에 기원

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물론 요녕지방에서도 이른 시기에서부터 어로관련용 도구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로 신락유적의 경우에도 최하층에서부터 어망추가 보이고 홍릉와유적에서는 골제 미늘있는 작살이 나타나는데 대략 기원전 5천년 전후의 시기인 것이다(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1985).

어로작업에 관한한 바다가의 유적과 강가의 유적에서 도구의 사용에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수자원의 특성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과 또 다른 하나는 유적의 퇴적과정이 다른 점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어로작업을 위한 도구는 돌로 만든 것 이외에도 뼈나 조개로 만든 것이 많이 있는데 특히 바다가의 패총 유적에서는 이러한 것이 보존 환경이 양호하여 잘 남아 있는 편이다. 돌로 만든 어로 도구는 어로방식에 따라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낚시용이고, 그물용, 채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어로방식이 이렇게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유물로 남아 있는 것을 기능적으로 분류할 경우에 세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낚시는 선사시대 어로도구의 대표적이고 석제 도구 중에 비교적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을 요구하는 도구인데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남해안의 경우에 상노대대에서는 전기층에서 시작되고 또한 동삼동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인 조도기에서는 존재가 불확실하다. 북한의 서포항유적에서도 상당히 늦은 4,5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낚시는 대부분의 경우 뼈나 조개로 만들었으며 그 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포획대상이 달랐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낚시는 크게 두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 덩어리의 재료로 작은 낚시를 만든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두 개의 조각을 합쳐서 만드는 소위 “뿔음식낚

시”이다. 이 뿔음식 낚시를 만드는 데는 골각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양양의 오산리유적에서는 몸체를 돌로 만든 것이 나왔는데 길이가 약 10 센티미터 내외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임효재, 권학수 1984). 돌을 갈아서 만들었는데 상부머리에는 매기에 편하도록 홈을 돌리고 있고 아랫부분은 고리 부분과 연결하기 쉽도록 구부러지게 해 둔 것이다. 이 석기는 골각제를 모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강하고 무게가 있어서 아마도 대형의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 뿔음식 낚시는 동해연안 지역에서 집중 분포하고 있어서 환동해신석기문화의 특성으로 생각되고 있다(渡邊 誠 1984).

어로도구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가 채집과 관련된 것이거나 또는 물고기나 바다 짐승을 사냥하는 도구인 찌르개와 작살일 것이다. 이러한 도구들이 이전의 경제생활 방식인 사냥의 도구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예가 많지는 않다. 찌르개살은 끝부분이 뾰족하지만 다른 한쪽은 매기에 좋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돌로 만든 것이 지탑리나 궁산유적 그리고 동삼동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찌르개살은 물고기를 잡아올리는 역할 뿐 아니라 송곳과 함께 조개채집과 조리과정 등에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많다. 작살은 민지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가 다르고 또한 여러 개를 묶어서 사용하는 뿔음식 작살도 있다. 뿔음식 작살은 서포항이나 상노대대에서 보이는데 이러한 작살은 대체로 큰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비교적 힘든 어로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어망추는 그물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았다는 증거이다. 초기의 어망추는 납작한 조약들의 양쪽에 홈을 내어 그물에 묶기 좋도록 만든 것으로 대체로 바다가의 어망추가

크고 강가의 어망추가 작은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서포항유적이나 궁산유적의 것은 5내지 7 센티미터의 크기 인데 반해 강가유적의 금탄리나 남경유적의 경우에는 3 센티미터만의 것이 많다. 그리고 강가의 이 두 유적의 경우에는 엄청난 수의 어망추가 한 자리에서 발견된 예가 있는데 금탄리에서는 600점이 발견된 주거지가 있고 남경의 31호 주거지에서는 3,000점이 출토된 바 있는데 이는 분명 어로기술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김용간과 석광준 1984).

IV. 청동기시대의 마제석기

청동기시대는 금속이 사용되기 시작한 금속기시대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아마도 석기의 “황금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석기제작기술이 가장 발달한 시기이다. 그것은 사람의 도구제작에 대한 인지가 일반적으로 발달되었다는 점 외에 석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이며 주형으로 만들어진 금속기를 모방하려는 의욕도 한 몫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도구를 제작할 때 사용하였던 깨트리거나 누르거나 갈거나 하는 외형적인 물리적인 방식 이외에 주형을 이용하고 열을 이용하는 새로운 고차원적인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도구가 이 시기의 도구의 개념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 이 시기의 석기모양이다. 특히 청동기를 제작하기 위한 주범(鑄範)의 제작에서 오는 노하우는 석기제작의 정교한 면을 더욱더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청동기시대 들어서는 석기가 실제적인 기능이 있는 도구로서 뿐 아니라 의례적인 용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실제용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의

식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석기문화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석기는 단연 마제석검이라고 할 것이다. 이 석검은 이전의 석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식적이고 그만큼 제작에 공이 들어간 도구이다. 석부도 다양해지고 또한 여러 문화적 기원을 보여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석촉같은 사냥도구도 대단히 정교해지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석기시대에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한반도에서 귀하였던 옥제장신구들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금속기의 출현이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는 하지만 석기사용의 극대화도 이 시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서 다량의 마제도구들이 출토되는 것은 이러한 도구의 생산력이 높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잉여식량이 충분하여 석기의 제작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석기의 제작기술은 이미 신석기시대에 개발된 것이며 생산방식이나 석기의 기능적인 분화라는 점에 있어서 더욱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석기공작에 있어서는 신석기시대와 문화의 연속성을 보이는데 주민의 구성에 일어난 변화는 석기공작으로서는 그 판단이 어렵다.

1. 실용과 의례용 석기의 출현

마제석검은 청동검과 더불어 청동기시대의 도구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이다. 이 석검은 몇가지의 중요한 속성에 의해서 형식 분류가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지역적인 분포특성과 그 기능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김원용 1971 ; 심봉근 1994 ; 윤덕

향 1977 ; 정성희 1985 ; 전영래 1982와 1987등). 이러한 특성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손잡이의 형식인데 중간에 홈이 한번 있는 것 없는 것 그리고 2단으로 된 홈이 있는 것 등으로 일단병식(一段柄式), 이단병식(二段柄式), 그리고 유경식(有莖式)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석검이 기원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금속검의 모방이라고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김원용 1971 ; 윤덕향 1977 ; 전영래 1977). 그런데 어떠한 금속검의 모방인가에 따라 견해가 나뉘우는데 현재 대체로 마제석검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고 통주의 방식으로 제작된 오르도스(Ordos)검을 모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김원용 1971). 그런데 최근에는 이 석검이 대체적으로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경에 나타나고 있고 그 분포영역이 고조선이라고 표현되는 주민들의 분포와 일치하고 이것은 또한 고조선동검, 즉 요녕식동검의 분포와 일치하기 때문에 요녕식동검을 모방한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심봉근 1994). 물론 형식에 따른 기원의 차이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윤덕향 1977 ; 전영래 1977). 여하간에 금속검을 모방한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일대지역에 있어서 마제석기의 가장 특징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제석검은 석제도구가 의례적인 용구가 된 것이며 이러한 석기의 출현 자체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마제석검은 실용적인 용도로 개발된 것이며 실제로 주거지에서는 주로 이단병식이 많이 출토되고 있고 부장용으로는 일단병식이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원용 1986). 특히 주거지에서는 실제로 사용하여 재가공한 것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2. 생산도구의 변화

청동기시대에 들어서 농경관련도구로 2가지의 마제석기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유구석부와 유단석부이고 다른 하나는 반월형석도이다. 반월형석도는 이미 신석기시대에 출현하였지만 청동기시대에 들어서 농경이 본격화하면서 주거지에서 많이 출토하게 된다. 이 석기는 철제낫이 출현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반월형석도는 도작(稻作)과 함께 화북지방에서 전래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김원용 1964) 신석기시대 후기에 만주지역과 한반도의 북부지역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도작의 기원보다도 앞서는 시기에 본격적인 농경문화가 시작된 증거의 하나로 보인다. 그런데 청동기시대에 와서 이 반월형석도는 양식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양식적인 변화가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또는 제작상 또는 사용상의 조건으로 인한 임의적인 변화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양식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는 요녕지방에서 나오는 어형(漁形)이 반월형석도의 조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이 지역적인 변화를 일으켜 장주형(長舟形)으로 변화하고 다시 기원전 6세기경 송국리기에 와서 삼각형 교인석도가 성행하기 시작하여 원삼국기 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안승모 1985 ; 김상면 1985 ; 최인선 1985).

청동기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석부가 유구석부(有溝石斧)이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서 다양한 석부가 많이 발견되지만 이 유구석부는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분포가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남방적인 기원설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으며 그 기원이 도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김원용 1964).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석부가 화북의 농경문화의 전래과정에서 흘러

들어온 목공구라는 견해가 있는데(노혁진 1981), 이 견해는 화북의 농경문화가 화남보다도 앞선다는 전제하에 설정된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농경문화의 전통이 화북지역과 화남지역이 다르고 이 석부의 분포가 남방쪽으로 펼쳐져 있음을 고려한다면 화북기원설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경도구들은 많은 경우에 그 분포의 연속성이 중국의 남부지방과 연결되어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Chon 1992). 더구나 반월형석도와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기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같은 문화적인 기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석기는 그 기능에 대한 여러가지의 학설에도 불구하고 그 날의 형태나 장착의 방법이 목공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동기시대에 와서 석재경작구들이 사라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말해서 석재경작구들은 결국 목재경작구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목제도구의 제작에 이 유구석부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마제석촉은 신석기시대에 이미 시작되어 있었지만 청동기시대에 와서 그 양이나 형식의 다양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발전한 석기형태이다. 이것은 수렵이나 어로용의 도구, 그리고 전투용무기로서 세부적인 기능차이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석촉의 형식은 기본적으로는 자루가 달린 것과 저부가 만입한 형태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단면의 모양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고 평면의 모양에 따라서도 형식이 분류되기도 한다. 신석기시대의 석촉은 대체로 자루가 달리지 않은 기저부(基底部)가 평평하거나 내만형(內灣形)이었다. 그런데 내만형의 납작한 살촉은 원삼국시대에 까지 사용되기도 하는데 청동기시

대 들어와서는 자루가 달린 것들이 출현하고 그 형태도 촉부와 기부가 분리되는 것과 연결되고 기부가 납작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가지가 청동기시대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지만 점차로 기능 분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관찰에 의하면(최성락 1982; 황용훈 1983) 분묘에서 발견되는 것과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것이 다른데 대체로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분묘에서 출토되는 것이 촉부가 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부장용으로 사용한 것은 미사용품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V. 결어

한반도에서 석기공작은 구석기시대 이외의 시기에 있어서는 다른 유물에 비해 비교적 연구가 뒤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석기진화의 흐름에서 보면 구석기 이래 문화진화의 발전단계를 커다란 시간적인 차이 없이 밟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석기의 시작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이고 또한 중석기문화의 기원과 성격도 밝혀야 할 과제이지만 중요한 석기문화요소들이 주변지역의 문화와 어떠한 관계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고고학적인 한국문화의 범위에서 어떻게 발생하였던가에 대하여 개략적인 과정은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어느정도 밝혀진 바 있다. 그리고 석기공작의 양식적인 변화와 구성의 변화는 다른 어떤 문화요소보다도 선사시대의 생계경제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 석기 연구에서 생계경제의 복원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론에서는 민족지적인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실험고고학적이고 생화학적인 분석방법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석기공작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청동기시대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 생산용구로서만이 아니라 의례용으로서의 석제도구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성격은 애초에 생활용과 의례용의 구분이 없이 사용되다가 점차로 양식적인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향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의 다중구조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에 석기공작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분류가 이루어지고 그 기원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었지만 근래 한반도나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쏟아져 나오는 자료를 볼 때 이제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하는 시기이며 앞서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의한 석기공작 이면의 문화복원을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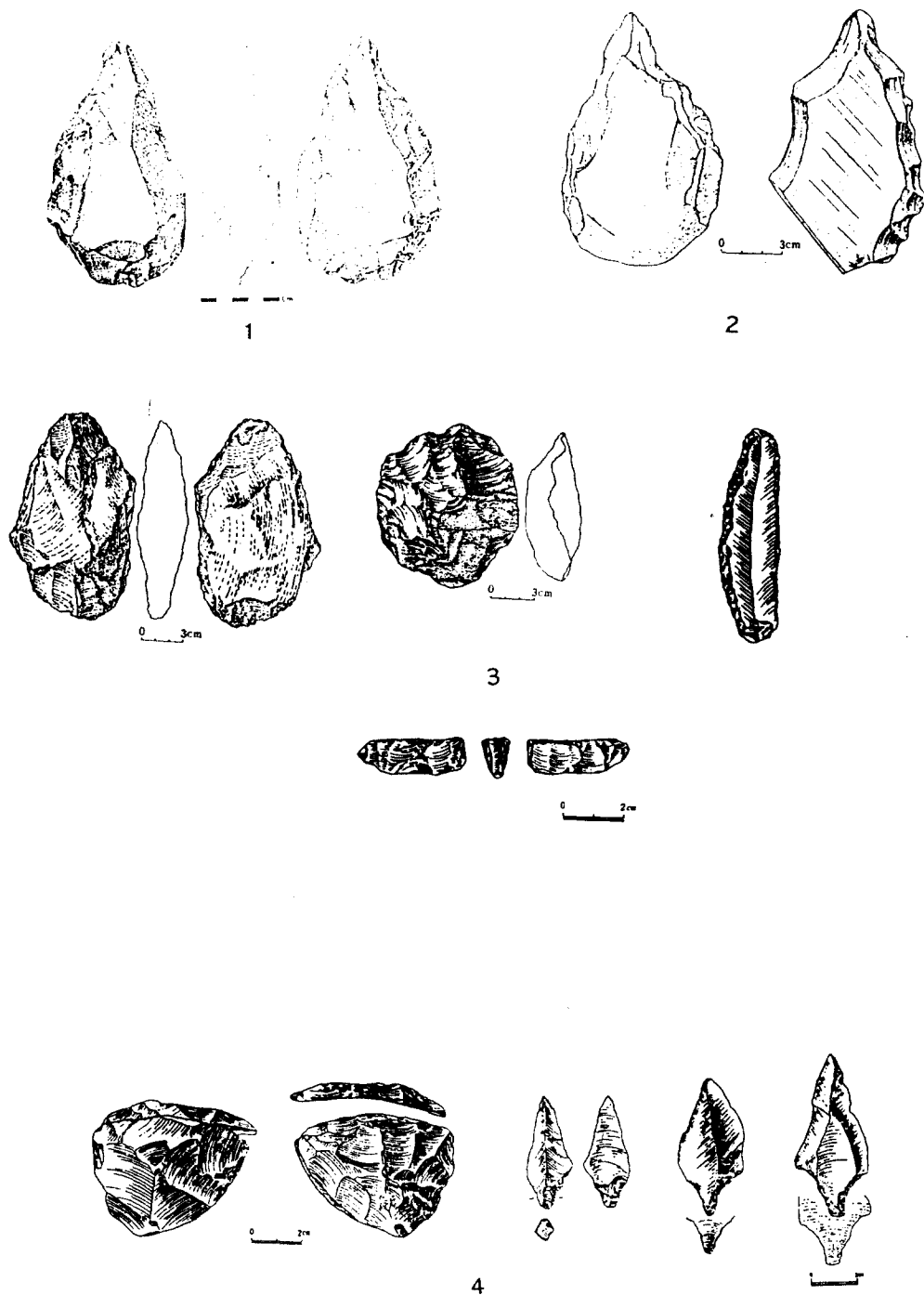
참고문헌

- 고고학연구소, 1969 상원검은모루유적발굴중간보고, 고고민속논문집 제1집, 1-30.
- 고고학 민속학연구소 1957 궁산원시유적발굴보고.
- 길경택 1985 한국선사시대농경과 농구의 발달에 대한 연구, 고문화 2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김교년 1994 중국동북지방 신석기시대의 문화,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면 1985 삼각형석도의 일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우 1994 한국마제석검의 연구현황, 한국상고사학보 15, 한국상고사학회.
- 김신규와 김교경 1974 상원검은모루 구석기시대 유적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집.
- 김용간과 서국태 1972 서포항원시유적 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4집.
- 김용간과 석광준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 김원용 1971 한국마제석검의 기원에 대한 일고찰, 백산학보 10.
- 김원용 1964 한국도작기원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24집, 진단학회.
- 김원용 1986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 일지사.
- 김원용과 정영화 1979 전곡리 아슐리안 양면핵석기 문화예보, 진단학보 46/47/. 7-47.
- 김원용, 배기동, 정영화, 황용훈, 최무장, 박동원, 이상만, 장남기, 이선복과 고지마 미노루. 1983 전곡리. 문화재연구소.
- 노혁진 1981 유구석부의 일고찰, 역사학보 89. 역사학회.
- 도유호와 황기덕 1961 지탑리 원시유적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8집.
- 도유호와 황기덕 1960B 무산읍 범의구석 원시유적발굴 중간보고, 문화유산 60-1.
-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7 유적발굴회의자료.
- 마쓰후지 가즈도 1991993 동아시아 중의 이와주구시대, 이와주구시대를 안다(일문), 1993년도 이와주구대학 강의록집.
- 박진욱 1967 우리나라의 활촉의 형태와 그 변천, 고고민속 67-1.
- 박희현 1989 제원 창내 후기구석기문화의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기동 1993 금파리유적발굴조사예보, 전국역사학대회발표요지문, 역사학대회조직위원회.
- 배기동 1997 파주금파리유적형성의 특징과 석기공작, 수양개와 그 이웃들, 제2회 수양개국제구석기학술회의.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 고고학연구소

- 1992 조선전사 I,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서국태 1986 조선의 신석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 서국태 1987 만달리 동굴유적의 석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87-2.
- 손보기 1970 석장리의 새기개-밀개 문화층, 한국사연구 5, 1-46.
- 손보기 1971 석장리의 후기구석기시대 주거지, 연세논총 8, 3-20.
- 손보기 1972 석장리전기중기문화층, 한국사연구 1, 1-58.
- 손보기 1982 상노대도의 선사시대살림, 수서원.
- 손보기 1984 단양 도담리지구 유적발굴조사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 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 편. 15-100.
- 손보기 1988 한국구석기연구의 길잡이, 연세대학교 출판부.
- 손보기 1989 상무릉리에서 발견된 흑요석의 고향에 대하여, 상무릉리, 강원대학교 박물관.
- 손보기 1993 석장리선사유적. 동아출판사. 서울.
- 신숙정 1994 우리나라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연구, 학연문화사.
- 심봉근 1994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마제석검의 분포와 성격, 동아시아의 청동기문화.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제3집. 문화재연구소.
- 안승모 1985 한국만월형석도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용욱 1997 임진-한탄강 유역 구석기공작의 성격연구-주먹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덕향 1977 한반도 마제석검의 일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주 1993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의 초기신석기문화에 대하여, 국제학술대회논문집, 문화재연구소.
- 이선복 1988 구석기시대, 한국고고학보 21, 25-34.
- 이선복 1996 임진강 유역 구석기유적의 연대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34, 한국고고학회.
- 이선복, 강현숙, 이교동, 이상희, 김용하, 신정원, 성춘택 1990 옥과구석기유적, 서울대학교 박물관-곡성군.
- 이선복과 이교동 1993 주월리, 가월리유적, 서울대학교박물관.
- 이선복과 클라크 G.A. 1983 Observation on the Lower Paleolithic of Northeast Asia, Current Anthropology 24-2, 181-202.
- 이용조 1984 단양수양개유적발굴조사보고, 충주댐수몰지구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 이용조 1997 한국단양수양개유적출토 쯔돌날몸들의 성격과 위치,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 대판경제법과대학.
- 이용조, 우종윤, 윤용현, 1996, 수양개유적의 후기구석기시대 문화-쯔돌날몸들을 중심으로-, 수양개와 그 이웃들, 1회 국제학술회의, 단양향토문화연구회, 충북대학교 박물관.
- 이청규와 고재원 1995 고산리유적과 석기유물, 제주 신석기문화의 원류,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요지, 한국신석기연구회-한라일보사.
- 임효재와 권학수 1984 오산리유적, 서울대학교 박물관.
- 장호수 1982 상노대도 조개더미유적의 펜석기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래 1977 전북지방 마제석검의 출토례와 몇가지 문제제기, 고고학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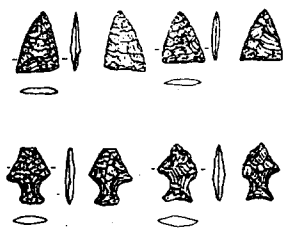
- 한국고고학학회.
- 전영래 1987 한국마제석검연구서설, 삼불
김원룡선생정년퇴임기념논총 1. 동
출판위원회.
- 전영래 1982 한국마제석검과 석촉편년에
대한 연구, 마한백제문화 6, 마한백
제문화연구소.
- 전제현, 윤진, 김근식과 류정길. 1986 룡곡
동굴유적. 김일성대학교 출판부.
- 정성희 1985 경남지방 마제석검에 대한 연
구, 고고역사학회지 1, 동아대학교
박물관.
- 정영화 1995 한국고고학의 반세기—구석기시
대 제회 전국고고학대회발표요지한국
고고학의 반세기 한국고고학회 서울
- 정영화 1986 한국이 구석기, 한국고고학보
19, 63—103.
- 정영화 1986 한국의 구석기, 한국고고학보
19집, 한국고고학회.
- 정영화 1994 한국구석기문화연구의 제문
제, 인문연구 16집, 영남대학교 인
문과학연구소.
- 최무장 1996 원당유적, 건국대학교 한중고
고학연구소.
- 최무장 1983 제천 명오리구석기유적발굴약
보고, 1983, 충주댐수몰지구 문화
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충북대학
교 박물관 편, 31—44.
- 최무장 1981 한국의 구석기 문화, 한국구
석기문화연구. 한국정신문화 연구
원. 15—48.
- 최무장 1983 제원 명오리 지구 유적 발굴
약보고, 1983 충주댐 수몰지구 문
화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충북대
학교 박물관 편. 31—44.
- 최성락 1982 한국마제석촉의 고찰, 한국고
고학보 12, 한국고고학회.
- 최성락과 坂田邦洋 1995 남해안지역 고고
학유적에서의 화산재층의 조사 : 선
사유적의 편년을 위한 연구, 역사의
재조명, 한림과학원총서.
- 최인선 1985 한국교인석도에 대한 고찰,
전남문화 3, 전남대학교.
- 카토 진페이 1992 일본문화와 시베리아문
화, 일본인의 기원, 하니하라 가즈
로 편저 배기동 역, 학연문화사.
- 클라크, J.D. 1982 Report on a visit to Pa-
leolithic sites in Korea, 문화재 15
호, 문화재관리국.
- 하인수 1997 영남지역의 용기문토기의 재
검토, 영남지역의 신석기문화, 제6
회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 한영희 1994 신석기시대의 사회와 문화,
한국사 I, 한길사.
- 한창균 1994 구석기시대의 사회와 문화,
한국사 I, 한길사.
- 한창균 1992 용곡 제1호동굴유적의 시기구
분과 문제점, 박물관기요 8, 단국대
학교 박물관.
- 황기덕 1984 조선의 청동기시대, 사회과학
출판사.
- 황기덕 1965 무산 범의구석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6.
- 황용훈 1983 석기, 골각기, 한국사론 12.
후지무라, 카마다, 요코야마, 가지와라
1996 미야기켄 가미 다카모리유적,
고고학연구 43—2.
- 李曉鍾 1990 심양신락유지 1982—1988년
발굴보고, 요해문물학간 90—1.
- 張三水 1987 중국구석기문화, 천진과학학
술출판사.
-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내몽고공작대
1985 내몽고방한기홍융와유적발굴
간보, 고고학보 85—10.
- 요녕성문물고고연구소 1986 요녕우하량홍
산문화여신묘역 적석총군발굴간보,

- 문물 86-9.
허옥림, 부인의, 고미선, 1985 요녕동구현
후와유적발굴개요, 문물 89-12.
渡邊 誠 1984 縄文時代の 漁業.
- Bae, Kidong 1987. On the Date of the Chongokni Industry on the Basis of the Geological Process of the Hantan River Basin, 삼불 김원용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1. 783-98.
- Bae, Kidong 1988. The Significance of the Chongokni Paleolithic Stone Industry in the Paleolithic Tradition of East Asia. Ph. D. dissertation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 Chon, Young-nai 1992 Introduction of rice agriculture into Kore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shed stone implements, Pacific Northeast Asia in Prehistory, Ed. by M. Aikens and S. N. Rhee.
- Clark, J. D and K. D. Schick 1988 Context and contents: impressions of Paleolithic sites and assemblag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 of Human Evolution vol. 17, 439-448.
- Derevianko, A. P. 1990 Paleolithic of North Asia and the Problems of Ancient Migration, Academy of Sciences of the Russia, siberian Division, Institute of History, Philology and Philosophy.
- Gai, Pei. 1985 Microlithic industries in China. In Paleoanthropology and Paleolithic Archaeolog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d. by Wu and Olsen. Academic Press, Orlando, pp. 225-242.
- Huang, Weiwen. 1985 On the Stone Industry of xiozhangliang, Acta Anthropologica Sinica vol. IV, No. 4. pp. 301-7.
- Huang, Weiwen. 1987. Bifaces in China, Acta Anthropologica Sinica vol. VI, No. 1. pp. 61-8.
- Hutterer, K. L. 1977 Reinterpreting the Southeast Asian Paleolithic. In Sunda and Sahule, ed. by J. Allen, J. Golson and R. Jones. Academic Press, London, pp. 31-71.
- Movius, H. L. Jr. 1944 Early Man and Pleistocene Stratigraphy in southern and Eastern Asia. Papers of the Peabody Museum of American Archaeology and Ethnology, Harvard University Vol. XIX No. 3. Cambridge, U.S.A.
- Movius, H. L. Jr. 1948 The Lower Paleolithic cultures of southern and eastern Asia. Transac. Am. Philo. Soc.(N.S.), 38 : 329-420.
- Schick, K., N. Toth, Wei Qi, J.D. Clark and D. Etlar. 1991. Archaeological Perspectives in the Nihewan Basin, China, J. of Human Evolution 21, 13-26.
- Wei, Qi. 1985 Paleolithics from the Lower Pleistocene of the Nihewan Beds in the Donggutuo site. Acta Anthropologica Sinica Beijing 4(4) : 289-300.



도판 1. 전기 및 후기구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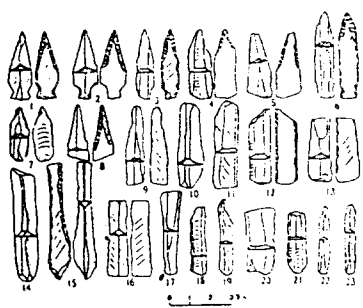
1. 선곡리추먹도끼, 2. 남굴추먹도끼, 3. 석장리석기, 4. 수양개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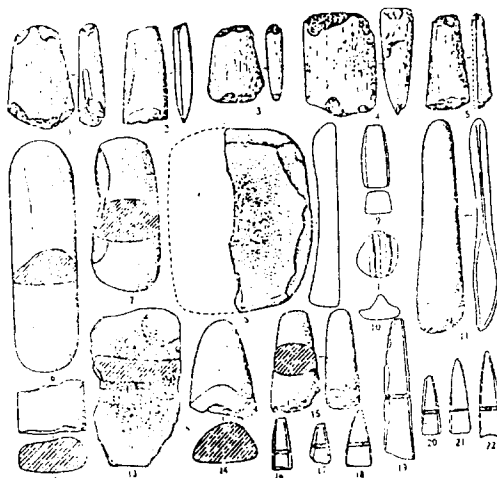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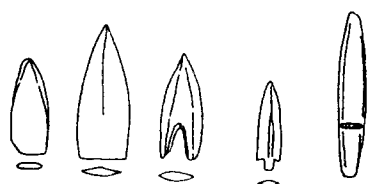


1~5, 8, 9 鏃 10~18, 20, 21 石葉 7, 19, 22, 23 尖狀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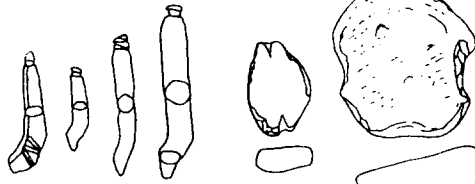


3

1~5 斧 6, 7, 12, 14 鏃 8, 13 磨盤 9~11 小石鏃 10 磨石
15 研磨器 16~17~18~20~21~22 鏃 19 半成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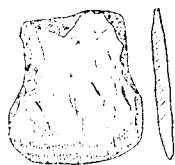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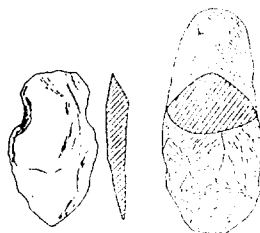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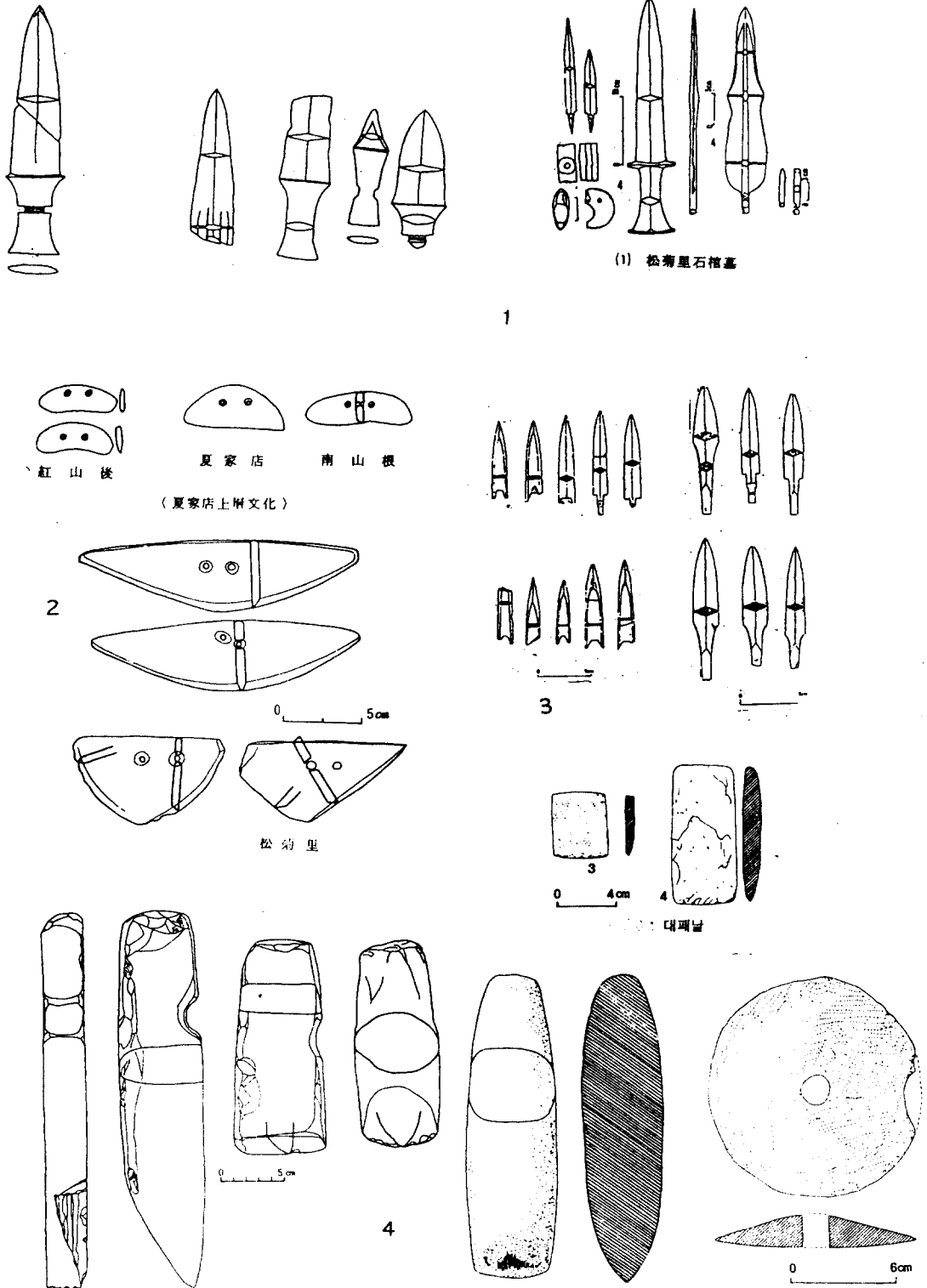


6



도판 2. 신석기시대석기류

1. 제주 고산리유적출토 점두기, 2. 거창 임불리출토 세석인 및 세석기, 3. 신라유적의 타세와 마세석기
4. 화살촉 각종, 5. 조함석어구 및 어망추, 6. 경자구가종(돌보습, 돌팽이) 7. 돌낫



도판 3. 청동기시대 서기가종

1. 미세석검(혼암리주서시출토, 송국리석관묘출토) 2. 반월형석도(남경유적, 송국리유적출토 삼가도), 3. 석촉가종, 4. 석부 가종(유구석부, 함인석부, 석차원편형석부)